

월요논단



정구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제2기 제주도체육회장은 명예보다 헌신을 필요로 한다

며칠 뒤(15일)에는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 선거가 있다. 236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간접 선거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그중 9개 단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돼 결국 227명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대표성을 갖고 투표에 임하는 대의원들은 제주체육의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

체육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나 도민들은 단순 명예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체육회장은 제주의

스포츠 정책과 발전을 지휘할 수장으로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신체 문화를 발전시켜 다양한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과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홍보 등 통합과 화해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새로운 체육회장 선거에 앞서 지난 2019년 본지 논단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초대 민선 체육회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현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선진 스포츠 체제를 만들어 내며 큰 비전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한다. 비전도 없고 안일하게 현 체제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제발 제주체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나 제1기 체육회장과 집행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으로 제대로 된

스포츠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고, 제주도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전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스캔들과 부정적 이미지를 남기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새롭게 체육회장에 도전하는 인사들은 전임 집행부를 반면교사 삼아 본인의 스포츠 행정과 정책이 제주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하면 좋겠다.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 오영훈 도정이 민선 8기 공약 이행계획을 102개 사업을 추진하며 7조7795억원 집행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문화체육 분야 예산이 3049억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민선 8기에서는 제주 스포츠 분야가 발전될 수 있길 기대했는데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인 듯하여

매우 아쉽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오롯이 현 체육회 집행부가 져야 할 것이다.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증액을 요청해야 했으나 그대로 방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현재 예산으로는 현상 유지를 넘을 수 없는 수준이다. 스포츠 문화가 활성화된 선진 사회에서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들은 건강 사회를 위한 절대 필요 조건으로 인식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한다. 새롭게 선출될 체육회장과 집행부는 경쟁의 장에서 나오되지 않으려면 예산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리더의 인식이 현실에 안주한다면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곧 선출될 차기 회장은 명예에 머물지 말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치워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세련된 리더십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사설

환경자원총량제 부작용 최소화 해야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제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환경자원의 총량은 어느 정도일까.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규제와 관리에도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산림 기능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제주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해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설문대여 성문화센터에서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제주도의 우수한 환경자원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목표 수준인 환경자원총량은 전체 면적(1871.40㎢)의 52.84%(988.80㎢)로 설정됐다. 특히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한 회피·상쇄·대체·보상

제도를 그 방안으로 내놨다. 이와함께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한 운영 조직 설립도 제안했다.

물론 환경자원총량제는 환경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취지이지만 엄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환경자원총량에 저촉되는 사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는 여전히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은만큼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토지주와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용역진이 ㎡당 9만3000원으로 제시한 환경자원총량 부과금도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의 우수한 환경자원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목표 수준인 환경자원총량은 전체 면적(1871.40㎢)의 52.84%(988.80㎢)로 설정됐다. 특히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한 회피·상쇄·대체·보상

교수들의 잇단 비리, 개탄 금할 수 없다

대학교수의 ‘비리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교수 비리가 갑질 성추행에서부터 연구·인건비 횡령 등으로 다양하면서도 대담하게 저질러지는 판이다. 제주라는 좁은 사회서 잇따라 터지는 교수들 비리로 도민들의 충격·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본보가 특종보도한 제주대 교수의 인건비 명목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학사회 교수 비리 만연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할 정도다. 일부 교수에 한정된 일탈이지만 대학 자체 감사나 사법처리 등에도 여전히 빈발하는 상황에서다. 지난주 터진 교수 비리는 5년간 산업잠수인력 양성사업을 도 보조로 수행하면서 제자를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로 44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이다. 2년전 50여건의 부당사례로 얼룩진 제주대에 대한 교원들의 종합감사 발표와 다른

비리다. 대학과 도가 진상조사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다. 교수들의 횡령 비리는 그간 사법처리 현실에서도 확인된다. 작년 모대학 교수 강사 등 6명은 청년일자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 1억원 넘게 편취했다가 징역·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재작년엔 대학 교수의 인건비 명목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학사회 교수 비리 만연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할 정도다. 일부 교수에 한정된 일탈이지만 대학 자체 감사나 사법처리 등에도 여전히 빈발하는 상황에서다. 지난주 터진 교수 비리는 5년간 산업잠수인력 양성사업을 도 보조로 수행하면서 제자를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로 44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이다. 2년전 50여건의 부당사례로 얼룩진 제주대에 대한 교원들의 종합감사 발표와 다른

열린마당

나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윤동준 한전 제주본부 요금관리부 요금팀장

력 역시 자체 에너지 다이어트 10추진 및 고효율 기기 보급과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합리적인 전기 소비와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하기, 겨울철 내복 입기, 전기장판 온도 한 단계 낮게 조절하기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

지구는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 에너지 다이어트 10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길 기대하며, 에너지 다이어트가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초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난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월에는 주요 공공기관이 모여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행사를 개최, 에너지 10% 이상 절감,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강령 준수와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전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년여만 최저

대출금리 인상 주요 원인

○...최근 제주지역의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주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5.4로 2년여만에 최저를 기록.

도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2020년 11월 넷째주(75.0) 이후 최저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올리면서 시중 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21년부터 급등한 도내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크다는 수요층의 인식에다 최근 가격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그 폭이 미미해 여전히 높은 가격수준으로 인식하면서 지금은 관망하는 시기로 보인다”고 분석. **문미숙기자**

성산읍 ‘후원인의 밤’ 훈훈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현동식·문경옥)가 지난 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착한가게, 착한개인 등 후원자를 비롯 지역 봉사단체장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기여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상황 보고,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에 후원증서 전달 등으로 진행.

현동식·문경옥 위원장은 “경제적제 분위기에 돌 한 해에만 2억여원이 모여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해 더불어 살아가는 성산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언. **백금탁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이씨 정자(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2월 12일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립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인동장씨 금향(향년 9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2월 12일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전화 010-7305-7819 **제주도백이**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